

월요광장



**이봉수**  
현대계획연구소 소장

연속성은 끊이지 않고 죽 이어지거나 지속되는 성질을 말한다. 한데 요즘은 ‘지속 가능성’이란 말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다. 일반적으로 특정한 과정이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생태학적 용어로서의 지속 가능성은 생태계가 생태의 작용·기능·생물 다양성·생산을 미래로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인간 사회의 환경·경제·사회적 양상의 연속성에 관련된 체계적 개념으로도 볼 수 있다.

지속 가능성의 개념은 지역의 이웃으로부터 지구 전체에까지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친다. 다시 정의하면 지속 가능성이란 쉽게 말해 현재는 물론 불확실한 미래에도 사람과 환경에 모두 최선을 주는 것이며, 오늘날의 모든 인간 활동에 대한 포괄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연속성과 지속 가능성이 개인·단체·사회와 미래에 대해 매우 중요함을 말하고자 하다 보니 설명이 길어졌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다소 진정되면서 사람들의 왕래가 기존 도심 지역과 상무지구 등을 중심으로 조금

도시의 연속성

늘어난 것 같다. 추위지는 날씨가 더욱 조심해야 할 시기이지만 지역민들의 무기력증과 경제 상황을 고려해 낮은 수준의 거리 두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할 것들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지키지 않는다면 조금씩 좋아지는 이 상황도 언제 급격하게 변화할지 모르는 일이다. 지역 구성원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광주는 요즘 코로나 상황이 아니더라도 미래 상황에 대한 이슈 즉 광주 전남 통합이나 공항 이전 등은 물론 새로운 정책으로 미래에 대비를 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것 같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도시 재생과 개발 같은 부분에는 소홀한 느낌이 든다. 도시계획이나 도시 재생 사업은 그 특성상 짧은 기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지역이나 도시가 변해 가는 특성이 있다. 물론 이 기간에 많은 노력과 협력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소규모 재생 사업이나 새마을을 사업 등 기존에 시작된 도시 재생 사업 과정과 이후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거나 중복되어서 진행이 될때 기존 사업이 이뤄 낸 물리적·사회적 성과를 해치지 않은 범위에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함을 말하고 싶다. 그런데 최근 국토부를 비롯한 행정의 움직임을 보면 기존 사업은 무시되고 새로운 사업의 성격을 덧씌우는 상황이 눈에 띈다. 이 때문에 오랜 시간 지역민과 행정 및 현장지원센터가 합의하여 함께 만들어 낸 유형 무형의 자산들이 새롭거나 연관된 사업에 의해 그 취지가 훼손되고 뒤를

린 방향으로 추진되는 일이 주변에서 나타나고 있다.

공명심·나태함·편리성 등에 의해서 사업의 성격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 시간에 쫓겼다가거나 같은 핑계를 댈 게 아니라, 사업의 주체인 지역민들을 위한 사업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완공되었거나 진행 중인 기존 사업과의 연속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역의 정신과 문화 그리고 정책은 지속적으로 진행되면 서 그 지역의 고유한 특성으로 자리 잡게 되고 지역을 대표하는 전통이 된다. 민선 7기 초부터 강조해 온 광주다운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

정책이나 방침을 자꾸만 백화점식으로 만들어 내고 발표할 게 아니라 중요한 흐름을 가질 수 있는 몇 가지 원칙을 인내하며 꾸준히 실천하고 지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그것만이 연속성을 가지고 광주를 명품 도시로 만들어 가는 길이 아닐까 생각한다. 정책이 나 사업을 새롭게 만들어 내는 것보다는, 지금은 기존 정책이나 사업들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이것들을 연계하고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고



**김형주**  
전 광주역사민속박물관 학예실장

광주공예박물관 건립 시급하다

아 내려오는 전승공예와 현재를 살아가는 시대적 특성과 감각을 반영한 현대공예로 나누어진다.

지금 전승공예는 시대 변화에 따른 수요의 격감과 기능 보유자들의 고령화로 인하여 전통 단절의 위기라는 높다란 장벽을 마주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작업 현장과 이들의 혼과 땀이 배어 있는 수많은 작품을 한데 모아 전시하고 보존함으로써 이들의 장인정신을 기리는 영구적인 기념 공간으로서 공예박물관 건립의 당위성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 더욱이 남도 지역은 으뜸가는 손재주로 뛰어난 공예문화 유산의 전통을 이어오는 곳으로 일찍이 그 명성이 높았다.

여기에서 시급한 공예박물관 건립의 필요성을 적시하고자 한다. 첫째, 연로한 무형문화재 기능 보유자들의 작품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문제가 현안이 되고 있다. 대다수의 공예 분야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는 60~80대에 해당하는 고령이어서 당장 이들의 사후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

단적인 사례로, 광주시 무형문화재 제4호 필장(筆匠)인 문상호 옹은 자신의 작업장에 포개어 놓다시피 열악한 상태로 보관되고 있는 죽필(竹筆)·갈필(葛筆)·고필(稿筆) 등 300여 점에 이르는 다양한 재질과 크기의 각종 붓을 영구 보존하여 후대에 전통문화 자료로 남기는 간절한 염원을 갖고 있다.

사실 수십억 원이 소요되는 개인박물관 설립은 엄두를 내기 힘들다. 그렇다고 자신의 유지를 구현해 줄 마땅한 기증처도 찾지 못하고 있는 중이다. 그분들의 진정된 뜻을 제대로 살려 내려면 불가불 공공 부문에서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그것이 현실적인 해법일 것이다.

둘째, 지역사회 문화 기반의 균형적인 확충을 위하여 필수적인 시설이라는 점이다. 시민들의 정서적·교육적인 핵심 문화시설이 박물관과 도서관이라 할 수 있는데, 선진국의 기준으로 시민 10만 명당 1개소가 적정한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다. 현재 우리 시에 공공도서관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확충되어 있지만, 공공박물관의 수효는 겨우 10개소에도 미치지 못해 상당히 미흡한 상태이다.

공공박물관은 막대한 자원의 소모로 인해 민간 차원에서 추진할 경우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건립 후에는 정상적인 운영 체계의 설정이 중요하므로 운영 주체는 독립기관 또는 광주역사민속박물관의 분관 형태, 공예협회의 위탁 등의 방안이 다각도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건립 장소는 시민 접근성을 고려하여 도시의 외곽보다는 도심권이 적합하다고 여겨진다. 건물의 형태는 독특한 구조와 외양의 신축 건물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여의치 않다면 충분한 전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기존 건물의 활용도 가능한 것이다.

아울러 공예박물관은 작품의 전시 및 수장 공간일 뿐만 아니라 공예문화의 연구와 교육, 공예인들의 다양한 활동, 작품 발표회 등이 이루어지는 복합시설로 조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부디 자랑스러운 무형문화재 기능 보유자와 1천여 공예인들의 간절한 염원이며, 지역문화를 애호하는 뜻있는 시민들의 소담스러운 희망이 반영된 공예박물관의 건립 작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알찬 결실이 이루어질 날이 오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해 본다.

기고



**박용수**  
고려인동행위원장  
한신대 초빙교수·정치학박사

광주의 고려인 내리사랑

설립자로 한센인과 결핵환자 구호 활동과 함께 광주3·1운동과 노동운동 및 청년운동을 이끈 '광주 정신'의 상징적 인물이다. 인도의 간디나 바울 사도에 비견되며 '인류의 스승'으로 평가받을 정도다. 1966년 별세하자 오방의 장례식은 최초의 광주시민사회장으로 거행됐다. 당시 수많은 한센인, 부랑아, 결핵 환자들이 운구 행렬을 뒤따르며 "우리 아버지가 떠났다"고 절규했다고 한다. 오방은 연해주 고려인 역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살려야 할 형제로 여겼다.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될 즈음 광주의 시선은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을 향하고 있었다. 광주의 고려인에 대한 두 번째 사랑이다. 광주일보가 고려인들의 한 맺힌 감제 이주사를 소개하면서, 고려인 모국어 찾아주기 모금 운동을 벌여 우즈베크와 카자흐스탄 등 다섯 곳에 한글학교를 세웠다. 당시 전남대와 조선대 졸업생 등 여덟 명이 청운의 꿈을 안고 교사로 파송됐다. 김병학 고려인 역사 연구가도 그중 한 사람이다. 카자흐스탄 우수토크 한글학교 교사로 갔다가 나중에 학교가 문을 닫자 고려일보에서 기자 생활을 했다.

그는 카자흐스탄에서 25년간 수집한 고려인 역사 유물 1만 2천여 점을 갖고 들어와 고려인 마을에 기증했다. 그중 고려인 기록물 23권은 지난1월 국가기록원의 국가 지정 기록물 제13호로 처음 등재됐다. 귀중한 고려인 역사 유물은 오는 12월 개관하는 광주 월곡동 고

려인 역사유물전시관에 전시된다. 카자흐스탄 한글학교 사 감병학이 가져온 뜻밖의 선물이다.

2001년은 고려인 마을 역사의 기원이다. 그해 우즈베크 고려인 3세 신조자 대표 가족 3명이 광주 월곡동에 처음으로 동지를 틀었다. 이후 고려인들의 광주행이 줄을 잇더니 어느새 7천 명을 넘어섰다. "광주가 인심 좋고, 살기 좋다", "광주 이천영 목사에게 가면 무엇이든 도와준다" 그런 입소문이 중앙아시아에 퍼진 덕이다. 무엇보다 월곡동 선주민들이 언어의 장벽과 문화적 차이나 생활의 불편을 이겨 내고, 같은 동네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결과다. 고려인마을에는 어린이집, 아동센터, 청소년문화센터, 세남학교, 고려인진료소, 미디어센터, 고려FM, 고려인 인문연구소 등 필요한 시설과 기관이 속속 들어섰다. 광주 시민들은 법률 상담과 의료 봉사, 고려FM과 고려인 콘텐츠를 통해 고려인들과 동행하고 있다.

광주 월곡동은 같은 공간에서 다른 언어와 문화가 공존하는 광주 속 지구촌이다. 통섭과 융합의 플랫폼이요, 생방송 삶의 현장이다. 따라서 다양한 스토리와 콘텐츠가 축적되고 있는 중이다. 고려인마을이 광활한 유라시아와 가고 역할을 감당하면서, 광주가 한층 커지고 있다. 역사는 보다 깊어지고 문화는 보다 풍성해졌다. 고려인이 이 땅에 온 것은 광주의 축복이다. 1백 년 전 오방 최홍중 목사로부터 시작된 내리사랑의 열매다.

社說

양 시도 이제라도 협력사업 발굴 적극 나서야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광주·전남도가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 발굴·지원 사업 공모 1차 심사 결과 매우 초라한 성적을 거둔 것이다. 국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따르면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 발굴·지원 사업 1차 심사 결과 전국적으로 29개 사업이 선정됐다. 이중 전남의 경우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획·추진하는 주관기관으로 1개 사업만이 선정됐다. 광주시도 2개 사업만 주관기관(공동주관 포함)으로 선정됐다. 이에 비해 부산·울산·경남은 9개 사업에서 주관기관으로 뽑혔으며, 대구·경북도 7개 사업이 선정됐다.

문제는 지역 간 협력 사업을 구성하는 초광역 협력 사업에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전혀 주도권을 쥐지 못했으며 게다가 시도 간 협력 사업 발굴마저도 실패하고 말았다는 점이다. '부울경 메가시티'를 추진하는 '부울경'은 총 9개 사업에서 주관기관으로 선정됐고, 예산 규모도 24조6545억 원으로 광주·전남이 주관기관으로 선

정된 3개 사업의 총 예산 1조2482억 원의 20배가량에 이른다.

부울경은 또 지역 내뿐 아니라 남해안권과 호남권을 아우르는 다양한 사업도 발굴했다.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대구·경북 역시 주관 기관으로 선정된 사업의 총 예산이 4조9310억 원에 달하며 인근 지역은 물론 호남 지역과의 다양한 사업도 발굴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이에 비해 광주시와 전남도는 크게 눈에 띄는 프로젝트 발굴에 실패했는데, 이는 전적으로 기획력은 물론 시도 간 협력이 부족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양 시도는 이제라도 소지역주의 초광역 협력 사업에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전혀 주도권을 쥐지 못했으며 게다가 시도 간 협력 사업 발굴마저도 실패하고 말았다는 점이다. '부울경 메가시티'를 추진하는 '부울경'은 총 9개 사업에서 주관기관으로 선정됐고, 예산 규모도 24조6545억 원으로 광주·전남이 주관기관으로 선

절차상 하자로 잇따라 패소한 '어설픈 행정'

전남 지역 자치단체들의 잘못된 행정처분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었다. 처분 과정에서 사전 통지나 의견 청취를 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어설픈 행정 탓에 보조금 환수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광주지법 행정 1부는 A위탁영농 회사가 담양군을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 반환 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사는 지난 2009년 담양군의 '영농조직화단체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뒤 저온 창고를 신축하고 보조금 9000만 원을 받았다.

담양군은 그러나 20여 일 후에 '보조금 환수 통보'를 하면서 기존 사전 통지에는 언급하지 않았던 '보조 사업으로 취득한 저장고를 승인 없이 임대하고 담보로 제공한 점'을 추가로 통보했다. A사는 이와 관련 '승인 없는 임대·담보 제공'에 대한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점을 들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사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줘야 하는데도 담양군은 이러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같은 재판부는 또 곡성군을 대상으로 지역 어린이집 원장들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원장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곡성군은 지난해 전남도의 종합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집 원장 경력 수당'으로 지급한 3200여 만 원을 환수, 어린이집 시설 회계로 다시 입금하도록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군이 시정 요구 전 어린이집 측에 사전 통지나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점을 들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자치체가 절차를 소홀히 해서 패소함으로써 보조금을 환수할 수 없다면 이 또한 주민의 형제인 예산을 낭비한 셈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이런 사례가 자주 반복되면 자칫 주민 불신도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지자체들은 보다 치밀하고 면밀한 행정을 펴야 할 것이다.

無等鼓

"독재적 국가주의의 심연(The abyss of autocratic nationalism)을 들여다본 미국인들은 벼랑 끝에 몰리나기로 결정했다. 개표는 진행 중이지만, 분명한 것은 조 바이든 후보가 선거 승리에 필요한 27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리라는 것이다. 우리 미국의 민주적 제도와 가치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4년간에 걸친 공격은 이제 곧 끝난다." 미국의 대표적 일간지인 뉴욕타임스가 지난 7일 자 지면에 게재한 사설 첫머리다.

미국 대통령 선거 나을 후에 실린 '마침내 조 바이든이 승리하다'라는 제목의 이 사설에서 뉴

세계 질서를 무너뜨리고 국가를 분열시키는 '심연 속 괴물'이라는 점을 지적한 셈이다.

심연(深淵)

뉴욕타임스는 트럼프가 통치한 지난 4년간을 '빠져나오기 힘들 만큼 깊은 연못'인 심연으로 비유하면서 바이든의 승리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뉴욕타임스 편집인들이 심연 속에 무엇이 존재한다고 생각 하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심연을 들여다본다'는 이 표현은 독일 철학자 니체의 저서 '선악의 저편'에 등장하는 저 유명한 문장을 연상시킨다.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우리가 심연

시커먼 심연에 몸서리치며 뒤로 물러서는 미국인들의 모습은 16개월 앞으로 다가오는 우리의 대선을 떠올리게 한다.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대치했던 3년 전과 다를 바 없이, 아니 오히려 갈등의 골이 더욱 깊이 파인 정치판을 지켜보는 우리 국민 '진영 갈등'이라는 끝 모를 심연에 진저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벼랑 끝에 선 국민을 외면한 채 권력 투쟁에 여념이 없는 정치권의 대오각성이 필요한 때다. /홍행기 정치부장 redplane@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崔宰豪</b>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에ditor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